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1.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오랜 성찰 후, 그는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스스로 설정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 ① 유희적 활동을 통해 삶의 재미를 추구한다.
- ② 편리한 삶을 위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다.
- ③ 반성적 삶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한다.
- ④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여 관행대로 살아간다.
- ⑤ 상징체계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2.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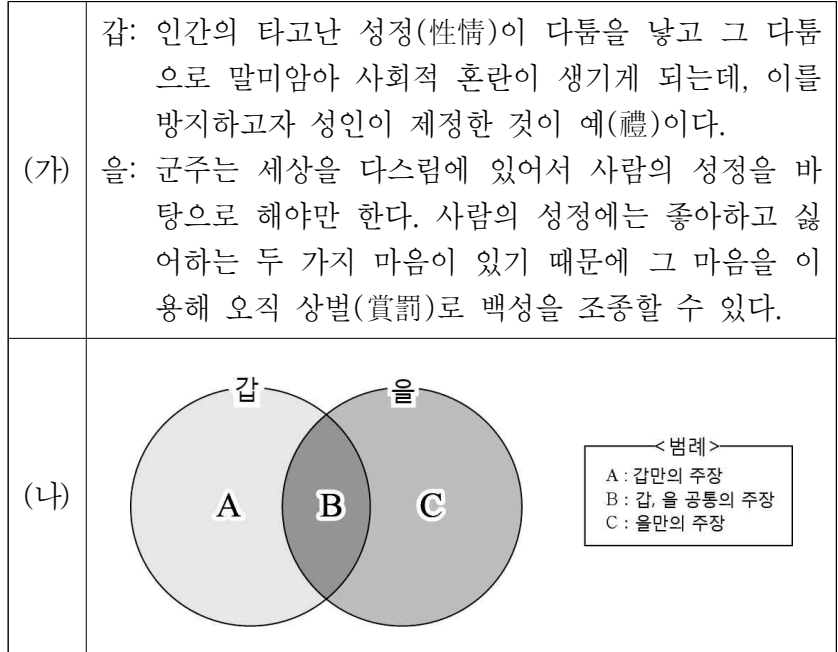
- ① 갑은 분별적 지혜와 욕심을 버릴 것을 강조했다.
- ② 을은 고정된 실체(實體)인 자아의 확립을 강조했다.
- ③ 병은 모든 생명체가 불성(佛性)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 ④ 갑은 사단의 확충을, 병은 허심(虛心)의 자세를 중시했다.
- ⑤ 갑, 을은 인의(仁義)를 벗어난 자연스러움을 중시했다.

3.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선의지(善意志)는 그 자체로 선하며 모든 선의 근거이다. 세상 안 뿐만 아니라 밖에서조차 제한 없이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을: 우주는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이다. 우리가 우주의 질서를 인식할 수 있다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어 우주와 참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① 갑은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효용성을 강조했다.
- ② 갑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선의 실천을 주장했다.
- ③ 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 원리로 간주했다.
- ④ 을은 귀납적 사고를 통해 진리에 도달할 것을 강조했다.
- ⑤ 갑, 을은 이성적 인식을 통한 삶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4.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A~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법(法)과 술(術)을 요체로 정치를 해야 한다.
- ② A: 인위(人爲)를 일으켜 성(性)을 교화해야 한다.
- ③ B: 백성에 대한 군주의 사랑[仁]을 실천해야 한다.
- ④ C: 상벌만으로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 ⑤ C: 백성은 예(禮)로, 신하는 위세(威勢)로 다스려야 한다.

5.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에 나타난 A의 행위를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하늘은 인간이 선(善)을 행하려고 하면 선을, 악(惡)을 행하려고 하면 악을 행할 수 있는 권형(權衡)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 실제로 자신의 공(功)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신의 죄(罪)가 된다.

<사례>

A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 빈 좌석에 놓여있는 지갑을 발견했다. 주변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지갑 속에는 현금이 많았지만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다.

- ① 마음[心]이 곧 이치[理]임을 알고 있었군.
- ②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에 따라 행동하였군.
- ③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행동하였군.
- ④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덕(四德)을 끝까지 보존하였군.
- ⑤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켰군.

6. 고대 서양 사상가 갑~병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나오고, 모든 악덕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을: 영혼의 세 부분이 자기 역할을 훌륭히 완수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덕이다.
 병: 인간에게 부여된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과도함과 부족함을 피하는 것을 습관화한 것이 덕이다.

—<보 기>—

- ㄱ. 현실 속에 이데아가 있다고 보았다.
 ㄴ. 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였다.
 ㄷ. 감각을 토대로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였다.
 ㄹ. 덕의 실현을 위해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임금이 내 나라의 이로움[利]을 따지면, 신하들은 내 집안의 이로움을 따지게 되고, 선비는 자신의 이로움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로움보다는 어짐[仁]과 의로움[義]이 중요합니다.
 을: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서로 이로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왕(聖王)의 법도이니, 힘써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

- ①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② 예악(禮樂)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③ 실리보다 명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④ 천하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⑤ 인간의 본성인 자연스러움을 찾는 것입니다.

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진리 인식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자연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부터 없애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네 가지 우상(偶像)과 그로부터 생겨난 그릇된 관념들은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도 얻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 ① 연역적으로 추론한다.
 ② 변증법적으로 사고한다.
 ③ 방법적으로 회의(懷疑)한다.
 ④ 이성을 통해 직관적으로 사유한다.
 ⑤ 객관적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탐구한다.

9. 조선 시대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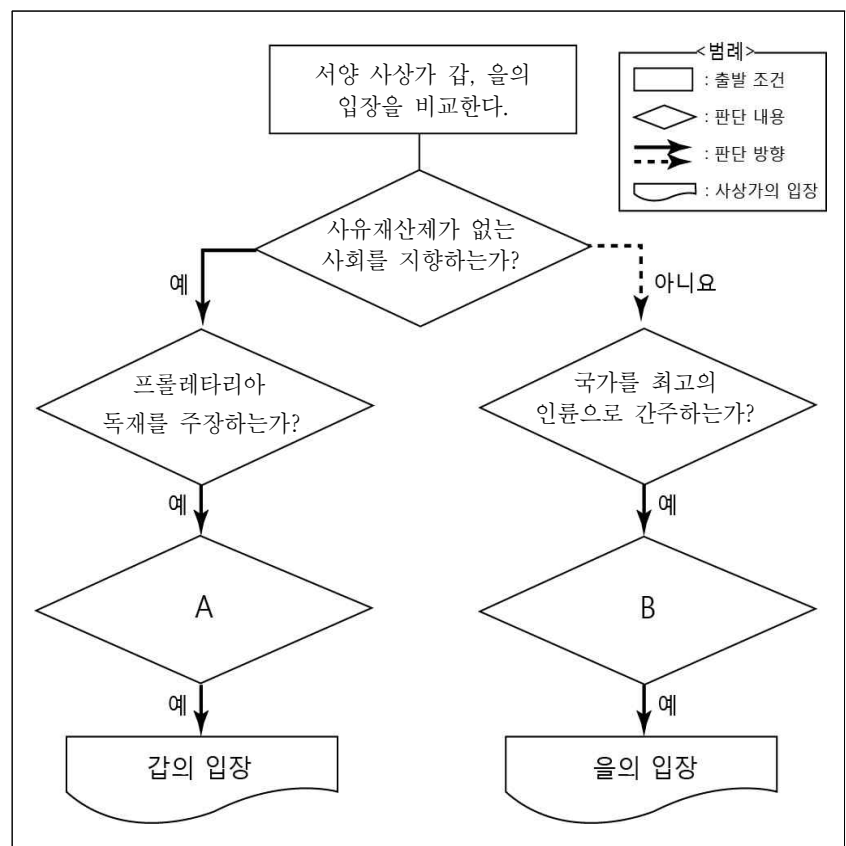
갑: 사단과 칠정은 비록 정(情)이기는 하나, 연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부터 이름을 달리하였다. 사단과 칠정의 구별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천리와 인욕을 혼동하는 위험에 빠진다.
 을: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는 것은 우주의 변화과정과 인간 심성의 발현과정을 분리시키는 오류를 낳는다. 사단은 칠정 가운데 단지 선한 것만을 가려낸 것이기에,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보 기>—

- ㄱ.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情)인가?
 ㄴ. 사단은 이(理)가 발(發)한 것인가?
 ㄷ. 칠정은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탄 것인가?
 ㄹ. 발하는 것은 기(氣)뿐이고, 발하는 까닭은 이(理)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의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형성되는가?
 ② A: 인격과 지혜를 갖춘 철인(哲人)이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가?
 ③ A: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가?
 ④ B: 단자(單子)가 조화를 이룬 사회를 지향하는가?
 ⑤ B: 최소수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회를 지향하는가?

11.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이란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덕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게 하는 지성적 덕과 인간의 감정이나 행위와 관련된 품성적 덕이 있다.
을: 신앙과 이성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고,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세상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목적을 결정한 최초의 존재가 신이다.

- ① 갑은 실천적 지혜와 의지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 ② 갑은 종교적 덕의 실현으로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③ 을은 직업은 신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며 구원의 징표라고 주장하였다.
- ④ 을은 성직자의 도움 없이 개인의 독자적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⑤ 갑, 을은 현실 세계 속에 참된 진리의 근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2.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A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개인은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아, 또는 사회적 맥락이 모두 제거된 추상적인 자아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관계에서 분리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삶의 통일성을 획득해 나가는 존재이다.
(나)	A는 진정한 부자는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조건 없이 세상을 위해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A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서 “내 재산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보 기>—

- ㄱ. 사회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
ㄴ. 원자적 자아보다 관계적 자아를 중시하고 있다.
ㄷ. 사회적 책무보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
ㄹ. 인간의 개체성보다 시민의 연대성을 중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서양 사사가 갑, 을, 병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쾌락이 목적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방탕한 자의 쾌락이나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쾌락은 고통에서 해방되어, 마음이 평안한 상태[ataraxia]이다.
을: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과급 범위를 고려하여 쾌락의 총량과 고통을 계산해 보라. 이 둘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좋은 성향을 지닌 것이다.
병: 어느 누구도 동물적 쾌락을 만끽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찮은 동물로 전락시키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행위의 궁극 목적은 양과 질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충분하게 향유하는 것이다.

- ① 쾌락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 ②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하는가?
- ③ 고통에 순응하는 삶이 이상적인가?
- ④ 이성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가 추론되는가?
- ⑤ 유용성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14. 다음은 스승과 제자의 가상 대화이다. 동양 사사가인 스승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자: 인의(仁義)로 행동을 다스리고 예악(禮樂)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도(道)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스승: 그렇지 않다. 인의와 예악은 본성을 훼손하고 덕을 해친다. 그것은 마치 네모꼴을 만드는 곱자를 가지고 사물의 모양을 깎아서 곧게 하고 노끈으로 묶거나 아교풀로 붙여서 사물을 변형시키는 일과 같은 것이다.

- ① 자연 법칙과 타고난 본성에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인위(人爲)를 통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도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오감(五感)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한다고 본다.
- ⑤ 양지(良知)를 바탕으로 인간 본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15. 중국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지(知)와 행(行)은 언제나 서로 의존한다. 마치 눈만 있고 발이 없으면 나아가지 못하고, 발만 있고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관계이다. 선후(先後)를 말하면 지가 먼저이고 경중(輕重)을 말하면 행이 더 중요하다.
을: 지가 진실되고 정성스러우며 독실한 것이 곧 행이며, 행의 의미가 밝게 드러나고 세밀히 검토되는 것이 바로 지이다. 지와 행은 본래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① 갑은 격물(格物)의 의미를 마음을 바로 잡는 것으로 보았다.
- ② 갑은 앎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이라고 보았다.
- ③ 을은 마음 밖에 어떠한 이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④ 을은 세계의 참모습을 이론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갑은 마음과 이치를 하나로, 을은 둘로 나누어 보았다.

16. 그림은 현대 서양 사상가와 학생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성을 통해 감정의 현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② 쾌락의 극대화를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③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④ 의무의식을 바탕으로 도덕법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⑤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관습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17. 다음은 한국 근대 사상이다.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뀔 수 없는 것은 도(道)이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은 기(器)이다. 삼강(三綱), 오상(五常), 효제충신(孝悌忠信)이 도이고, 예악(禮樂), 복식(服飾), 기용(器用)이 기이다.
 (나) 양이(洋夷)의 화(禍)는 홍수나 맹수의 피해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사악(邪惡)한 양적(洋賊)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바른 것이고, 양적과 화친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전자를 따르면 나라를 보전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른다면 금수(禽獸)의 지경에 빠질 것이다.

<보 기>

		서양의 과학기술 수용을 인정하는가?	
		예	아니요
성리학적 가치를 수호하는가?	예	A	B
	아니요	C	D

- | | | | |
|-----|-----|-----|-----|
| (가) | (나) | (가) | (나) |
| ① A | B | ② A | D |
| ③ B | A | ④ C | B |
| ⑤ D | C | | |

18. 다음 현대 서양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참된 관념은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들에 적용되어 제대로 작동될 때 실제 가치를 지니며, 경험 속에서 구성되고 검증을 통해 확정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가치는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가치는 존재할 수 없다.

<보 기>

- ㄱ.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과정을 중시한다.
 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치 있다고 본다.
 ㄷ. 오직 이성으로 도덕적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ㄹ. 도덕 판단의 기준이 선형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수행의 요체는 정(定)과 혜(慧)에 있고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닦아야 한다. 정은 산란한 마음을 집중하여 정신적 통일을 이룬 선정(禪定)의 상태이며, 혜는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智慧)이다.

- ① 참선(參禪)보다 경전 공부에 힘써야 한다.
 ②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작용을 분리해야 한다.
 ③ 사회와 분리된 개인의 해탈을 추구해야 한다.
 ④ 점진적으로 경전의 지식을 쌓아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
 ⑤ 단번에 진리를 깨친 뒤 욕망을 점차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

20. (가), (나) 사상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위민(爲民)과 애민(愛民)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정치사상으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서경(書經)』의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나)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정치사상으로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스(kratos)’가 합쳐져 구성되었다.

<보 기>

- ㄱ.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
 ㄴ.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간주한다.
 ㄷ. 통치의 정당성을 하늘이 부여하였다고 본다.
 ㄹ. 민의(民意) 반영을 위해 주기적인 권력교체를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